

정해영 “야구 할수록 어려워…내년엔 끝까지 강렬하게”



정해영



아쉬움의 시즌을 보낸 KIA 타이거즈 정해영이 태극마크를 달고 유종의 미를 거둔다.

마무리 정해영은 10월 8일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홈경기에서 팀의 2-1 승리를 지키면서 타이거즈 역사상 첫 3년 연속 20세이브 기록을 달성했다.

V11의 역사에도 '마무리' 고민이 많았던 KIA 입장에서 정해영의 기록은 큰 의미가 있다. 프로 첫해 필승조로 입지를 굳힌 정해영은 이후 마운드 최후의 보루로 역할을 하면서 팀의 마무리 새 기록을 만들어 가고 있다. 통산 100세이브에도 10개를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올 시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쉬움이 더 많이 남는다.

불안불안한 시즌 초반을 보냈던 정해영은 퓨처스리그에서 재정비 시간을 가졌다. 생각보다 복귀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5월 28일 엔트리에서 말소됐던 정해영은 7월 2일, 1군 마운드로 돌아왔다.

공백이 길었고 3개의 불륜 세이브로 기록하면서 3년 연속 30세이브 기록은 이루지 못했다. 정해영은 본격적인 마무리로 나선 2021년 34세이브를 수확했고, 지난 시즌에는 32개의 세이브를 더했다. 올 시즌은 23세이브로 마감했다.

그래도 시즌 마무리는 좋았다. 정해영은 10월 8

타이거즈 첫 3년 연속 20세이브 마무리 좋았지만 올 시즌 아쉬워 신중보다 때론 과감할 필요 있어 혼나면서 깨닫고 더 배워가는 중국대 선발 대구서 소집 훈련 한창

경기에서 '0'의 행진을 하면서 6경기 연속 세이브를 만들기도 했다.

정해영은 "시즌이 정말 빨리 끝난 것 같다. 마무리가 좋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쉽다"고 올 시즌을 돌아봤다.

그는 "3년 연속 세이브 기록은 내가 발로 찾다. 야구가 연차가 쌓일수록 더 어렵다. 물론 이제 4년 밖에 경험하지 않았지만 야구가 너무 어려운 것 같다"며 "특히 올해 그걸 많이 느꼈다. 더 많이 공부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걸 느낀 시즌인 것 같다"고 말했다.

아쉬움이 더 많이 남지만 정해영은 올 시즌에도 성장했다.

정해영은 "아빠가 TV로 경기 보시면서 많이 신중해졌다고 하셨다. 배우고 성장하는 것 같다"며 "작년에 그랬고 또 신중해져야 할 때 무턱대고 들어가서 많이 맞은 경기들이 있었다. 올해 주자는

많이 내보냈지만 그래도 최대한 최소 실점으로 막은 것 같다"고 밝혔다.

때론 신중보다는 과감할 필요도 있다. '신중과 과감' 사이에서 정해영은 다시 또 야구를 배우고 있다. 올해 새로 호흡을 맞춘 포수 김태군이 정해영에게 자극제가 됐다.

"맨날 혼난다"며 웃은 정해영은 "마무리가 좋아 있다고 맨날 혼나는데 인정한다. 확실히 초반에 안 좋아서 더 어렵게 느꼈던 것 같다. 구위가 올라와도 초반에 안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조금 많이 신중해지고 어려워했던 것 같다. 혼나면서 깨닫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좋은 성적을 만든 10월 그리고 11월에는 태극마크를 달고 새로운 경험도 쌓게 된 만큼 정해영의 2024시즌에 대한 기대감은 크다.

정해영은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 대표팀에 선발돼 대구에서 소집 훈련을 소화하고 있다. 정해영은 올 시즌을 교훈 삼아 내년 시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강렬하게 달리겠다는 각오다.

정해영은 "내년 시즌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좋게 마무리하고 싶다"며 "대표팀에 뽑힌 것은 기분 좋다. 그전에 먼저 한번 (아시아게임 대표팀에) 뽑혔다면 좋았겠지만 그건 내가 잘 못해서 못 간 것이다. 이번엔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하고 오겠다"고 대회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제1회 광주시체육회장배 전국 민물낚시대회 성료

동호인 등 360여명 참여

국민체육진흥공단 '야외 레저스포츠 활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된 '제1회 광주시체육회장배 전국 민물낚시대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대회는 지난 4~5일 광주 서구 신서창교 일원에서 동호인 가족 등 3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참가자를 대상으로 행운권 추첨을 통해 광주지역 특산물 및 브랜드 상품, 각종 낚시용품 등을 증정해 호평을 받았다.

시상금(품) 또한 각 부문(배스, 붕어낚시) 1위 400만원, 2위 300만원, 3위 200만원(이상 시상품 포함 금액) 등 전국 유수의 대회에 준하는 규모로 지원해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여가 스포츠 낚시종목의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대회가 됐다.

대회 결과 배스 부문 1위는 전재훈, 2위는 진형수, 3위는 정승호가 차지했다.

붕어 부문은 블루길 등 타 외래어종은 많이 잡혔으나 대상 어종인 토종붕어가 잡히지 않아 시상금 및 시상품을 참가자들에게 고루 분배해 참가자 모두가 즐기는 대회로 마무리됐다.

심판을 맡은 이상원 심판은 "전국의 많은 대회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이 배스부문 수상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재훈, 전갑수 회장, 진형수, 정승호.

(광주시체육회 제공)

를 다녀봤지만 이번 대회 만큼 참가자 서로 간 도움과 배려 속에 진행된 대회는 처음이었다. 뜻 깊은 대회로 기억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전국 낚시대회를 통

해 많은 동호인과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레저 스포츠로서 낚시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바둑 절대 1강' 신진서, 꿈의 승률 90% 돌파할까

올해 101승 12패 승률 89.38% 남은 경기 16승 1패 팬 새 역사

한국 바둑의 '절대 1강' 신진서(23·사진) 9단이 현대 바둑사를 새로 쓰고 있다.

47개월 연속 랭킹 1위를 지키는 신진서는 올해 '바둑올림픽'으로 불리는 응씨배와 아시안게임(AG)을 동시에 제패한 최초의 프로기사가 됐다.

여기에 지난 3일 열린 제46기 SG배 한국일보 명인전 패자조 4회전에서 김은지(16) 7단을 꺾고 프로 바둑 최초로 연간 100승(12패)을 돌파하는 금자탑을 세웠다.

더는 이룰 것이 없어 보이는 신진서이지만 그동안 불가능으로 여겨졌던 '꿈의 승률' 90% 달성 여부가 올 연말 바둑판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인다.

7일 현재 신진서의 올해 성적은 101승 12패로 승률 89.38%다.

2012년 프로 입단 이후 연간 최다승은 물론 개인 최다 대국 기록까지 세웠지만 올해 아직 남은 대회가 많다.

국내 기전은 명인전과 5육7관절타이밍 선수권전, 세계대회는 15일 개막하는 삼성화재배와 LG배 8·4강전이다.

신진서가 외국인 선수 자격으로 출전하는 중국 갑조리그도 4라운드 가 남았다.



신진서

대국 수는 대회 상황에 따라 상당히 유동적이지만 대략 15~20판이 남아 있다. 쉽지 않은 시즌이지만 신진서가 남은 대국을 모두 이긴다면 프로 바둑 최초로 연간 승률 90%를 돌파하게 된다.

한 번의 패배까지는 기록 달성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신진서가 남은 기간 16승 1패를 기록하면 올해 최종 성적이 117승 13패가 돼 승률이 딱 90%를 찍게 된다.

만약 신진서가 승률 90% 달성에 실패하더라도 역대 최고 승률 경신은 유력해 보인다.

한국기원 연간 최고 승률은 2020년 신진서가 수립했던 88.37%(76승 10패)다.

올해 신진서는 연간 최다승금도 잡아 치울 것으로 기대된다. 역대 최다 상금은 지난해 역시 신진서가 세운 14억4천495만원이다.

한국기원에 따르면 이날 현재 올해 신진서가 벌어들인 상금은 13억5천만원 가량이다.

앞으로 1억원만 추가하면 연간 최다승금도 2년 연속 경신하게 된다.

현대 바둑의 새 역사를 쓰고 있는 신진서가 올 연말에도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게 될지 팬들의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

광주도시공사 '핸드볼 간판' 강경민 SK로 이적

여자핸드볼 2022-2023시즌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 강경민(사진)이 SK 슈가글라이더즈로 이적한다.

지난 시즌까지 광주도시공사에서 뛴 센터백 강경민은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어 7일 SK 유니폼을 입기로 했다.

국가대표 강경민은 2019-2020시즌, 2020-2021시즌, 2022-2023시즌 등 최근 4년간 세 번이나 정규리그 MVP에 선정된 국내 여자 핸드볼의 간판선수다. MVP가 된 시즌마다 득점왕까지 차지하는 등 탁월한 득점력이 강점이다.

11일 개막전을 치르는 신한 SOL페이 2023-

2024 핸드볼 H리그를 앞두고 여자부에서는 활발한 이적이 이뤄지고 있다.

강경민 이적 외에 부산시설공단에서 뛰던 국가대표 핵심 전력 이미경은 경남개발공사로 옮길 예정이다. 이미경은 지난달 황재우 아시안게임에서 류은희(화기리 코리)와 함께 대표팀 주득점원으로 활약한 센터백이다.

지난 시즌 코리아리그 우승팀 삼척시청은 대구시청에서 뛰던 김선화를 영입했다.

김은아와 김선화 자매는 삼척시청에서 다시 한 술뼉을 먹게 됐다.

SK에서 뛰던 권한나는 서울시청 유니폼을 입게



강경민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경남개발공사는 대구시청 소속이던 김아영도 데려갈 예정이고, 삼척시청 강은서는 인천시청으로 옮겨 2023-2024시즌을 치른다.

2023-2024시즌 H리그 여자부 경기는 11일 SK-부산시설공단, 12일 서울시청-대구시청 전남 열리고 세계선수권대회 휴식기를 갖는다.

이후 2024년 1월에 여자부 일정이 재개되며, 이적하는 선수들은 2024년 1월 경기부터 출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즐거움 문화 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더 마블스
- 2관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톡 투 미
- 3관 30일, 다이브: 100피트 추락
- 4관 더 마블스
- 5관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 6관 더 마블스
- 9관 뉴 노멀, 소년들
- 7관 씨네커플 소년들
- 8관 씨네커플 30일, 톡 투 미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3년 광주상설공연(11월)
일시: 2023-11-01(수) ~ 2023-11-30(목)
매주 목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광주공연마루
문의: 062-613-8379/8372

한문연 방방곡곡 문화공감 우수공연
세종술로이스츠 & 이만 보스트리치 '일루미나이션'
일시: 2023-11-12(일) 17:00
장소: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062-613-8235